

# 대응분석을 통한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 연구

## Differences in Perception towards Career Problems of Adolesc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using Correspondence Analysis

김소라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Sora Kim(srkim@scnu.ac.kr)

###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청소년들의 진로 관련 문제에 관해 다문화 청소년 및 학부모들과 비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로문제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 차이를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응분석을 사용하여 총 825명의 응답자들을 네 개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외모에서의 거리감,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진술들에 대해 다문화 청소년은 매우 동의하는 편, 비다문화 청소년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 편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들이 가지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혼란에 대해서는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 모두 동의하지 않는 편이었으나, 비다문화 청소년의 학부모들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들은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할 기회가 드물고, 진로활동 참여에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비다문화 청소년들은 동의하지 않는 편에 가까웠다. 넷째, 교육 및 제도 측면에서 비다문화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다문화 학생 진로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소년 뿐 아니라, 비다문화 가정 학부모들이 가지는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 중심어 : | 다문화청소년 | 진로문제 | 인식의 차이 | 대응분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perceptions toward multicultural adolescents' career problems between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par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and youth and parents in non-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discuss their differences. For this purpose, the data from 825 respondents were analyzed using correspondent analysis. The results follow as: first, multicultural adolescents tended to agree very much with the difficulties of interpersonal relations, distance from appearance, and economic difficulties while non-multicultural adolescents tended to disagree with. Second, both multicultural and non-multicultural adolescents disagreed with the confusion about identity as Koreans, but parents of non-multicultural adolescents showed a negative perception. Third, in terms of education and institutions, multicultural adolescents recognized the strong need for expanding career education opportunities for multicultural students, supporting employment, strengthening access to career information, and professional help for careers compared to non-multicultural adolescents.

■ keyword : | Multicultural Adolescents | Career Problem | Difference in Perception | Correspondent Analysis |

\* 이 연구는 2017년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지원사업 과제(2017S1A5A2A01024179)로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9년 09월 27일

심사완료일 : 2019년 11월 01일

수정일자 : 2019년 10월 23일

교신저자 : 김소라, e-mail : srkim@scnu.ac.kr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지난 2018년 초·중등학교의 다문화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의 2.2%인 122,212명으로 전년 대비 12,825명(11.7%)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학생 수가 93,027명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전년 대비 각각 1.2%, 0.6% 증가한 데 반해 초등학교생이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 향후 다문화 청소년들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 학생은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국내출생과 중도입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혼인귀화자와 함께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도 포함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은 문화적 측면을 강조한 용어로 한 가족 내에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의 결합을 일컫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소수집단' 등으로 불리며 문화커뮤니티를 존중하고 지원하면서 전체적인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고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2]. 즉, 다문화 가족과 비다문화 가족의 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중요하며, 특히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은 불안정한 정체성과 학교 현장에서의 다문화 수용성의 부족 등으로 인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 비다문화 학생들보다 다문화 청소년들은 언어 장벽과 문화에 대한 차이로 인해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으며, 동료 학생들과도 친밀감 형성에 있어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입시에 따른 스트레스와 다문화 정체성의 위기를 동시에 겪으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3]. 이로 인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진로교육과 직업훈련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다문화 학생의 증가세에 비해 공교육 인프라와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이 낮았던 만큼, 가까운 미래에 직면하게 될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문제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 청소년들 가운데 일부는 학교에서 따돌림, 소외감, 구타

등의 경험을 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다문화 대안학교도 설립되고 있다[4]. 해마다 교육부는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통해 다문화 학생의 학습과 진로, 국제이해교육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다문화 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을 위해 대인관계, 학업과 언어 문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면서 진로와 취업에 성공해야 하는 큰 장벽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적·문화적 적응과, 언어 및 학업 증진에 관한 연구는 다수 수행되어 왔으나 이들에게 현실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있는 진로와 직업에 관한 연구는 소수인 실정이다. 특히, 선행 연구들이 대부분 다문화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비다문화 청소년들과의 비교 연구는 극히 미비하다.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8)의 연구[4]에서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진로문제를 완화하려는 방안을 찾기 위한 출발점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 인식부터 이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와 비다문화 구성원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관련 문제에 인식에 대한 차이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가질 수 있는 진로 관련 문제에 관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및 학부모들과 비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생활 측면에서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 및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와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가 가지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진로문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가정환경 측면에서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 및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와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가 가지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진로문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진로활동 측면에서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 및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와 비다문화 청소년 학

부모들이 가지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진로문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넷째, 심리적 측면에서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 및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와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들이 가지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진로문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다섯째, 교육 및 제도 측면에서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 및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와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들이 가지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진로문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구성원 집단들이 가지는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지각된 문제들을 비교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 진로교육에의 시사점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수용성 교육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선행연구 검토

### 1. 다문화 인식 현황

일반적으로 다문화 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를 일컫는데, 제3국 출생 외국인 자녀들도 교육적 혜택 대상 안에 포함되므로 다문화 청소년 범주에 포함시킨다[5].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이행되고 있는 과도기에서 문화적 다양성 인식에서 혼란을 겪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6].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갈등 요인인데, 초·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문화적·인종적 소수집단이 우리 사회에 피해를 주거나 한정된 자원을 빼앗아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도 있다[6-8]. 이는 학생들이 단일민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도록 학습되면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낯설과 두려움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선행 연구에서 다문화 학생들은 가정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 한국어 구사의 어려움, 일반 학생들과 다른 외모 등에 민감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9][10], 이러한 요인들이 생활환경과 학습 환경, 학교생활과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

한, 외국인 부모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은 자녀와의 원활한 관계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11].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다른 외모에 대한 동료들의 선입견에 상처를 받기도 하며, 외출할 때 다문화 학생 중에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을 한국 학생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경향도 있었다[12].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들이 서로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모두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은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모두 수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다문화 청소년들만의 큰 장점이 될 수 있다[13].

특히 다문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나 가치관 등을 성립할 때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5]. 하지만, 교사 또는 또래 집단의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로 다문화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문화 학생들의 교사들이 다문화와 학생들의 이해에 대한 부족함이 있는 경우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박근수와 곽연희(2013)의 중고등학생의 다문화 인식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14] 중·고등학생들은 다문화인들이 한국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출신 국가나 부모의 국적 등과 같은 조건보다는 다문화인들이 한국인으로 느끼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습득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한국 학생들의 올바르지 않은 다문화 인식으로 인해 다문화 학생들이 편견으로 인해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를 지적하였다.

### 2. 다문화 청소년 진로문제

청소년은 자아 탐색을 통하여 개인적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진로 의사결정에 있어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은 예민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각종 진로문제가 더욱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반 청소년들보다 상대적으로 전문적이고 섬세한 해결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적, 정서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교육적인 차원에서 진로지도 및 직업 능력개발 프로그램의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진로교육법」의 기본방향에서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명시하고 있으며, 「다문

화가족지원법」이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문화 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15].

박하나 외(2013)의 연구에서는 일반고와 특성화고 다문화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16]. 첫째는 진로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며, 둘째는 다문화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다문화 학생 특성 진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고의 진로교육이 입시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학업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적되었다. 오성배와 서덕희(2012)의 연구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의식, 진로준비행동과 이를 위한 사회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17]. 이 연구는 대부분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진로의식과 진로준비행동이 낮은 수준이나, 사회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들의 진로의식과 진로준비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김민경(2015)의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을 포함한 진로결정효능감 전체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18]. 최윤희와 김순자(2011)는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19]. 다문화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고, 자기수용성과 미래 확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수록 학교 적응과 진로를 잘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이 연구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차이에 따른 개별화를 통하여 이중문화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문화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및 상담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다문화 학생들과 비다문화 학생들을 비교한 연구가 많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2010)은 두 집단을 대상으로 진로의식과 진로에 대한 준비 및 진로계획을 조사하였다[20].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66% 이상이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까 봐 불안할 때가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진로 관련 적성/흥미 검사 경험도 일반학생이 다문화 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원하는 직업에 필요한 능력이나 기술 습득을 위한 노력은 다문화 학생이 비다문화 학생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연주와 안상근(2017)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진로포부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검증하는데 있어 일반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중학생들을 비교하였다[21]. 양육태도,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모두 일반가정 중학생보다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평균점수가 낮았으며, 아버지 양육태도가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다문화 청소년 집단에서의 영향력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선행 연구들은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취업 지원과 진로교육 기회가 부족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체계화된 진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생의 적성과 환경을 고려한 진로설계 및 적성개발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부로 개인의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다문화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자료 수집 및 응답자 특성

다문화 청소년 진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 규모의 설문조사를 2018년 5월 1일에서 21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조사전문업체(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연령과 지역을 고려한 할당표집을 실시한 인터넷 조사를 하였다. 연구목적상 다문화 구성원들을 가중표집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유의표집한 다문화 가족 응답자들을 포함하여 총 825명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다문화 청소년은 113명, 비다문화 청소년은 101명,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는 114명, 비다문화 청소년의 학부모는 497명이 포함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 항목은 다문화 청소년 진로 관련 학술논문 및 보고서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들로부터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 및 태도 등 인식을 수집하였다. 다문화 청소년 진로문제에 대해 사회적, 가정환경, 심리적, 진로 활동, 교육 및 인프라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 16개의 진술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동의한다”에 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영역별 항목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값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변수구성의 내적 일치도를 평가할 수 있는 Cronbach's  $\alpha$ 값은 0.687에서 0.809에 이르러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 변수들의 표준화 계수인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을 확인한 결과 모든 측정 변수들의 표준화 계수가 0.6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 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분석 방법

다문화 청소년 진로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응일치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활용하였으며, 실행을 위해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다문화 여부와 청소년과 학부모 집단에 따른 진로문제 인식의 차이를 보기 위한 분석방법으로서 범주화된 척도로 비교하는 경우 대응분석법으로 최적 평가치를 구할 수 있다[22]. 대응분석은 빈도로 이루어진 교차표를 분석하여 그림으로 나타내 줌으로써 보다 쉽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으로 세 개 이상의 유형의 범주형 자료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집단	빈도(%)			
			다문화 청소년	비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성별	남	57 (50.4)	59 (58.4)	61 (53.5)	273 (54.9)	
	여	56 (49.6)	42 (41.6)	53 (46.5)	224 (45.1)	
연령대	13-15세	28 (24.8)	13 (12.9)	30-39세		
				9(7.9)	38(7.6)	
				40-49세		

	16-19세	85 (75.2)	88 (87.1)	9(7.9)	38(7.6)
				50-59세	
				45 (39.5)	188 (37.8)
거주 지역	서울 경기	77 (68.1)	40 (39.6)	47 (41.2)	257 (51.7)
	부산 경남	2(1.8)	16(15.8)	20 (17.5)	68(13.7)
	대구 경북	1(0.9)	14(13.9)	10(8.8)	47(9.5)
	광주 전남	25 (22.1)	11 (10.9)	9 (7.9)	32 (6.4)
	인천	7(6.2)	12(11.9)	22 (19.3)	65(13.1)
	대전 충청	1(0.9)	8(7.9)	6(5.3)	78(6.6)
합계		113 (100.0)	101 (100.0)	114 (100.0)	497 (100.0)

대응분석에서는 자료행렬이 구성하는 다차원공간의 프로파일 점(profile point), 각 점에 할당된 가중치(mass)와 각 점들 간의 거리 함수 등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료 행렬의 점(point)이 구성하는 다차원의 수를 하나의 부분 공간(subspace)으로 투사함으로써 차원축소를 실시하여 그 관계를 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chi^2$  검증 결과

대응분석은 우선 분할표에서 행과 열 범주의 독립성을 알 수 있는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다. 본 연구의 총 16개의 변수에 대해서 카이제곱 검정과 관성누적 비율을 통해 유의성을 확인해 보고, 집단별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문제 인식의 차이를 도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6개 진술문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과 관성누적비율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모든 진술문에서 카이제곱( $\chi^2$ )값은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 비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비다문화 학부모, 네 개의 집단과 다문화 청소년 진로문제에 대한 16개의 진술문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23]. 즉, 네 개의 집단과 각각의 진로 인식 진술문에 동의하는 정도는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카이제곱( $\chi^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다문화 청소년, 비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및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간에 진로 인식에 있어 차이가 없음을 뜻하므로, 더 이상 대응 분석 결과를 논의할 필요가 없게 된다.

대응분석은 행 변수(독립변수)와 열 변수(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최소한의 차원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분석으로 행 변수와 열 변수 간의 관계를 90도씩 회전하면서 각 차원의 설명도(관성)를 구할 수 있다. 첫 번째 차원, 즉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이 최대가 되도록 회전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차원을 찾는 일종의 주성분 분석의 방식을 사용한다. 열 혹은 행의 최소 개수보다 1이 적은 차원의 개수를 최대로 하는데, 16개 관계에 대한 대응분석의 관성누적비율을 보면, 최소 0.931에서 최대 0.998에 이르는 안정된 값을 보이고 있다. 관성비율은 각 차원의 설명력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서 집단과 변수 간 관계가 2차원에서 93.1%까지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집단과 각 진술문 간의 관계는 2차원까지 최소 93%이상 설명된다는 의미로 두 개의 차원으로 충분히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표 2. 카이제곱 검정 결과 분석

영역	진술문	카이제곱 (x2)	관성누적 비율
사회 생활	1.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대인 관계에 있어 어려움이 클 것이다.	46.750***	0.998
	2.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더 클 것이다.	41.649***	0.982
	3. 다문화인은 외모에서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	43.189***	0.996
	4. 다문화인은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34.997***	0.989
가정 환경	1. 다문화 학생은 비다문화 학생들에 비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경제적인 제약이 따른다.	54.534***	0.987
	2.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기 힘들다.	64.432***	0.971
	3. 다문화 학생들은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부모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32.842**	0.941
	4. 다문화 학생들은 부모 또는 가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신의 진로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8.421***	0.947
심리적 측면	1. 다문화 학생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	66.242***	0.937
	2. 다문화 학생들은 비다문화 학생들에 비해 진로선택에 관한 모든 것이 모호하고 불확실하다.	57.029***	0.939
진로 활동	1. 다문화 학생들은 비다문화 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기회가 드물다.	80.227**	0.978
	2. 다문화 학생들은 진로상담이나 진로멘토링 참여에 있어 소극적이다.	101.641***	0.970
교육 및 제도	1.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기회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	68.840***	0.984
	2. 다문화인의 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67.721***	0.997

3. 다문화 학생들은 비다문화 학생들보다 진로정보에 대한 제한이 접근되어 있다.	65.436***	0.944
4. 다문화 학생들은 비다문화 학생들보다 진로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	61.479***	0.975

\*\*\* p<.001, \*\* p<.01

## IV. 분석 결과

### 1. 사회생활 영역에서의 진로문제

사회생활 측면에서의 진로문제에 대한 집단별 인식 분포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프로파일 표에 제시된 행 크기는 행 변수(항목) 누계분포의 상대빈도를 뜻하며, 그 합은 1이 된다. 예를 들면, 전체 응답자들 중 대인관계에 있어 어려움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 비율이 0.063임을 의미한다. 먼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대인 관계에 있어 어려움이 클 것이다.”의 진술문에 대해서는 다문화 청소년들은 동의하는 편(0.301)과 매우 동의(0.204)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반면, 비다문화 청소년은 동의하지 않는 편(0.228)과 중립적(0.297) 비율이 높았다.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들은 동의하는 편에 있어서 다문화 청소년들과 유사함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진술문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더 클 것이다.”에 대해 다문화 청소년이 동의하는 편(0.310)과 매우 동의(0.248),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가 동의하는 편(0.421)과 매우 동의(0.175),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가 동의하는 편(0.477)과 매우 동의(0.185)로 비슷한 경향이었으나, 비다문화 청소년만이 다섯 개 항목에 대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 있는 분포를 보였다. 세 번째 진술문 “다문화인은 외모에서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에 대해서도 다문화 청소년이 매우 동의(0.212)와 동의하는 편(0.283)으로 비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0.325)와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0.330) 역시 동의하는 편이 높아 비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인은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다문화 청소년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편(0.221)과 동의하지 않는 편(0.221)으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비다문화 청소년

년 역시 전혀 동의하지 않는 편(0.168)과 동의하지 않는 편(0.228)으로 다문화 청소년과 유사한 태도를 나타냈다. 반면,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0.412)와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0.304)는 동의하는 편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 다문화 청소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3. 사회생활 영역에서의 진로문제 인식 프로파일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대인관계에 있어 어려움이 클 것이다					
항목 \ 집단	다문화 청소년	비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행크기
전혀 동의하지 않음	0.088	0.139	0.070	0.040	0.063
동의하지 않는 편	0.212	0.228	0.175	0.135	0.163
중립적	0.195	0.297	0.228	0.272	0.258
동의하는 편	0.301	0.168	0.342	0.427	0.366
매우 동의	0.204	0.168	0.184	0.127	0.150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클 것이다					
항목 \ 집단	다문화 청소년	비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행크기
전혀 동의하지 않음	0.097	0.119	0.044	0.040	0.058
동의하지 않는 편	0.195	0.168	0.088	0.111	0.126
중립적	0.150	0.267	0.272	0.187	0.204
동의하는 편	0.310	0.277	0.421	0.477	0.422
매우 동의	0.248	0.168	0.175	0.185	0.190

다문화인은 외모에서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					
항목 \ 집단	다문화 청소년	비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행크기
전혀 동의하지 않음	0.088	0.218	0.105	0.109	0.119
동의하지 않는 편	0.186	0.198	0.158	0.171	0.175
중립적	0.230	0.257	0.307	0.330	0.304
동의하는 편	0.283	0.198	0.325	0.330	0.307
매우 동의	0.212	0.129	0.105	0.060	0.096

다문화인은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항목 \ 집단	다문화 청소년	비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행크기
전혀 동의하지 않음	0.221	0.168	0.096	0.091	0.119
동의하지 않는 편	0.221	0.228	0.158	0.211	0.207
중립적	0.265	0.277	0.228	0.258	0.257
동의하는 편	0.177	0.188	0.412	0.332	0.304
매우 동의	0.115	0.139	0.105	0.109	0.113

이어지는 [그림 1-그림 4]는 2차원 평면상에서 청소년과 학부모 집단 간 사회적 측면에서의 진로문제 인식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대응분석은 특성에 있어 유

사한 집단들을 가깝게, 차이가 많은 집단들을 멀게 배치함으로써, 그 관계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은 비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가 가장 멀게 플롯되어 있었으며, 비다문화 청소년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 편,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는 동의하는 편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다문화 청소년은 매우 동의하는 편에 가장 가깝게 플롯되어 있어 청소년 집단 내의 인식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사회생활에의 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은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는 동의하는 편에 비다문화 청소년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비다문화 구성원 간에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



그림 1. 대인관계 어려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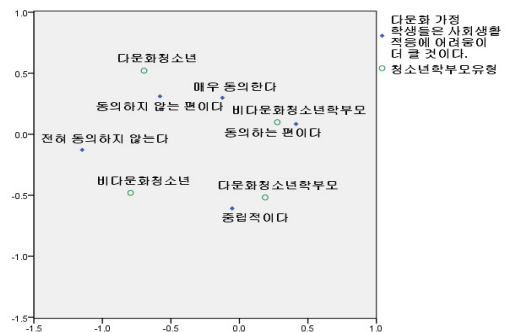


그림 2. 사회생활 적응 어려움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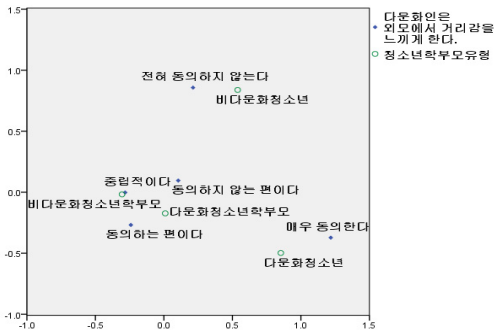


그림 3. 외모에서의 거리감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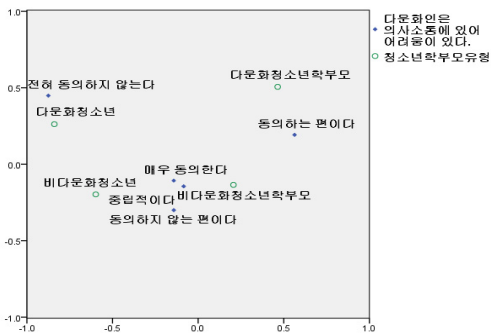


그림 4.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외모에서의 거리감에 대한 인식은 비다문화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이 가장 멀게 플롯되어 있었으며, 비다문화 청소년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 다문화 청소년은 “매우 동의한다”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 다문화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달리 비다문화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대비되고 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으며,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는 동의하는 편에 가깝게 플롯되어 있어 대조적이었다. 외모에 대한 인식과 달리 다문화 청소년들은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2. 가정환경 영역에서의 진로문제

여기서는 대응분석을 통한 집단별 가정환경 측면에서의 진로문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진

술문 “다문화 학생은 비다문화 학생들에 비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제약이 따른다.”에 대한 응답은 동의하는 편이 평균 비율이 0.325로 다문화 청소년(0.310)과 비다문화 청소년(0.149)은 평균보다 낮았으며,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0.342)와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0.360)가 평균보다 상회하여 학부모들이 청소년들에 비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매우 동의(0.230)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진술문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기 힘들다.”에 대해 다문화 청소년들이 동의하는 편(0.416)과 매우 동의(0.150)가 높은 응답 비율을 보여주었다. 상대적으로 비다문화 청소년들은 동의하는 편(0.109)과 매우 동의(0.069)가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 간 인식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진술문 “다문화 학생들은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부모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이 평균이 0.242, 매우 동의(0.079)의 비율을 나타내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편(0.263)과 중립적(0.314)의 분포가 높은 편이었다. 상대적으로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가 동의하는 편과 매우 동의 모두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학생들은 부모 또는 가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신의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한 응답 평균은 동의하는 편(0.320)과 매우 동의(0.108)의 비율이었으며, 다문화 청소년은 평균을 상회하는 비율을 보여주었다. 비다문화 청소년의 동의하는 편(0.257)과 매우 동의(0.267)의 비율로 보았을 때, 청소년 집단이 학부모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 가정환경 측면에서의 진로문제 인식 프로파일

다문화 학생은 비다문화 학생들에 비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경제적인 제약이 따른다						
항목	집단	다문화 청소년	비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행크기



전혀 동의하지 않음	0.053	0.158	0.035	0.048	0.061
동의하지 않는 편	0.168	0.238	0.175	0.201	0.198
중립적	0.239	0.366	0.325	0.310	0.309
동의하는 편	0.310	0.149	0.342	0.360	0.325
매우 동의	0.230	0.089	0.123	0.080	0.108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기 힘들다.

항목	집단	다문화 청소년	비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행크기
전혀 동의하지 않음		0.080	0.198	0.044	0.054	0.074
동의하지 않는 편		0.177	0.238	0.202	0.219	0.213
중립적		0.177	0.386	0.377	0.368	0.345
동의하는 편		0.416	0.109	0.333	0.278	0.284
매우 동의		0.150	0.069	0.044	0.080	0.084

다문화 학생들은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부모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항목	집단	다문화 청소년	비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행크기
전혀 동의하지 않음		0.124	0.228	0.088	0.074	0.102
동의하지 않는 편		0.274	0.287	0.298	0.247	0.263
중립적		0.239	0.297	0.298	0.338	0.314
동의하는 편		0.274	0.129	0.263	0.254	0.242
매우 동의		0.088	0.059	0.053	0.087	0.079

다문화 학생들은 부모 또는 가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신의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항목	집단	다문화 청소년	비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행크기
전혀 동의하지 않음		0.044	0.030	0.009	0.030	0.029
동의하지 않는 편		0.150	0.079	0.167	0.133	0.133
중립적		0.248	0.366	0.447	0.447	0.410
동의하는 편		0.381	0.257	0.272	0.330	0.320
매우 동의		0.177	0.267	0.105	0.060	0.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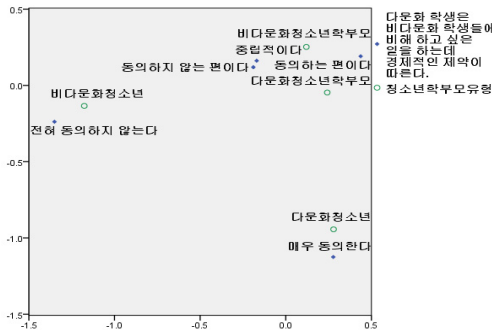


그림 5. 경제적 제약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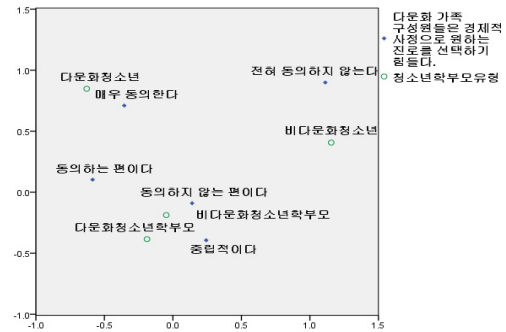


그림 6. 진로 선택의 어려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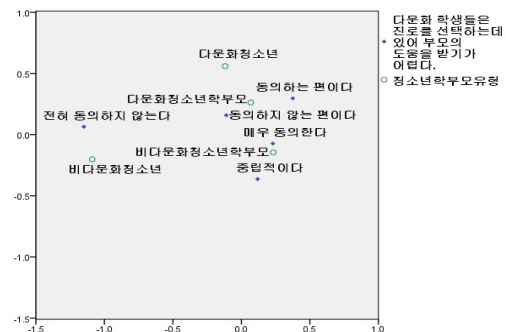


그림 7. 부모의 도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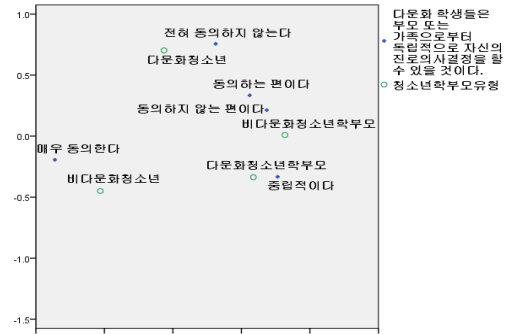


그림 8. 독립적인 의사결정 인식

### 3. 심리적 측면에서의 진로문제

다음의 [표 5]에서는 심리적 측면에서의 진로문제 인식의 응답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진술문 “다문화 학생

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에 대한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의 응답은 동의하는 편(0.4210)과 매우 동의(0.158)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의 응답은 동의하는 편(0.445)와 매우 동의(0.155)의 높은 비율을 보여 주어 학부모 집단이 청소년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 주고 있었다. 반면, 비다문화 청소년의 응답은 동의하는 편(0.196)과 매우 동의(0.079)의 비율을 나타내 다문화 청소년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두 번째 진술문은 진로에 대한 불안함으로 “다문화 학생들은 비다문화 학생들에 비해 진로선택에 관한 모든 것이 모호하고 불확실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들의 응답은 동의하는 편(0.310)과 매우 동의(0.159)의 비율을 보여 가장 동의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진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심리적 측면에서의 진로문제 인식 프로파일

다문화 학생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					
항목 \ 집단	다문화 청소년	비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행크기
전혀 동의하지 않음	0.035	0.149	0.053	0.032	0.050
동의하지 않는 편	0.159	0.198	0.026	0.103	0.112
중립적	0.301	0.376	0.342	0.266	0.295
동의하는 편	0.301	0.198	0.421	0.445	0.392
매우 동의	0.204	0.079	0.158	0.155	0.153
다문화 학생들은 비다문화 학생들에 비해 진로선택에 관한 모든 것이 모호하고 불확실하다.					
항목 \ 집단	다문화 청소년	비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행크기
전혀 동의하지 않음	0.115	0.228	0.088	0.062	0.093
동의하지 않는 편	0.195	0.248	0.175	0.264	0.240
중립적	0.221	0.356	0.368	0.334	0.326
동의하는 편	0.310	0.109	0.298	0.278	0.264
매우 동의	0.159	0.059	0.070	0.062	0.076

이어서 [그림 9]와 [그림 10]에서는 심리적 측면에서의 진로문제에 대한 인식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서는 다문화 청소년은 동의하지 않는 편에 가깝게, 비다문화 청소년은 비교적 “전혀 동

의하지 않는다”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로 선택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다문화 청소년은 “매우 동의한다”에 비다문화 청소년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 가깝게 플롯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역시 동의하는 편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서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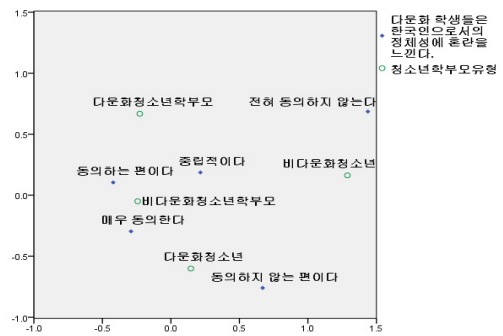


그림 9. 정체성의 혼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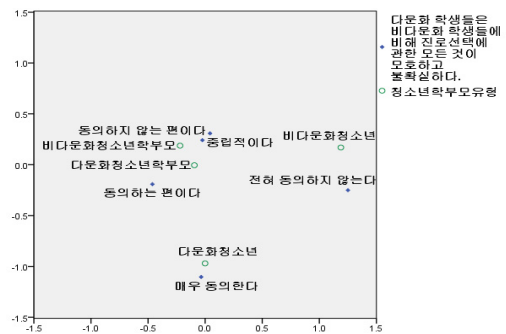


그림 10. 진로 불확실성 인식

#### 4. 진로활동 측면에서의 진로문제

여기서는 진로활동 측면에서의 진로문제에 대한 인식을 집단별로 비교하고 있다[표 6]. 진술문 “다문화 학생들은 비다문화 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기회가 드물다.”에 대해서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응답은 동의하는 편(0.319), 매우 동의(0.159)의 비율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비다문화 청소년의 응답은 동의하는 편(0.099)과 매우 동의(0.059)의 비율

로 보아 가장 동의하지 않는 편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 및 장단점을 알 수 있는 진로활동 동예의 요구도가 높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의 응답은 동의하는 편(0.254)과 매우 동의(0.070)의 비율을 보였으며,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의 응답은 동의하는 편(0.2560)과 매우 동의(0.044)의 분포로 학부모 집단들의 의견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두 번째 진술문 “다문화 학생들은 진로상담이나 진로멘토링 참여에 있어 소극적이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응답(0.413) 비율이 높은 가운데, 다문화 청소년들의 응답은 동의하지 않는 편(0.301), 전혀 동의하지 않는 편(0.062), 동의하는 편(0.292), 매우 동의(0.150)의 분포로 볼 때, 상대적으로 중립적(0.195)이라는 견해 보다는 동의하는 편에 기울어져 있는 경향을 보였다. 비다문화 청소년 응답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0.277)과 동의하지 않는 편(0.228)의 비율로 다문화 청소년들이 진로활동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크게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는 진술에 대해서 다문화 청소년은 “매우 동의한다”에 비다문화 청소년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는 “동의하지 않는다”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그림 11]. 진로상담이나 멘토링 등에 소극적이라는 진술에 대해서 역시 다문화 청소년은 “매우 동의한다”에 비다문화 청소년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다문화 청소년들이 비다문화 청소년들에 비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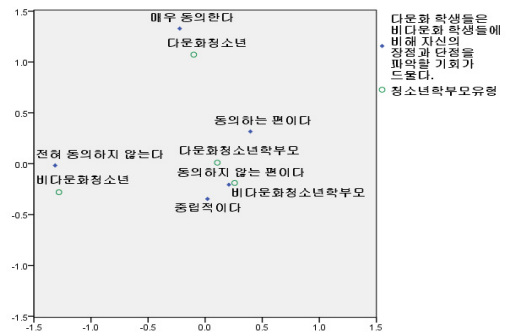


그림 11. 자아탐색 기회부족에 대한 인식

표 6. 진로활동 측면에서의 진로문제 인식 프로파일

다문화 학생들은 비다문화 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기회가 드물다.					
항목 \ 집단	다문화 청소년	비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행크기
전혀 동의하지 않음	0.124	0.297	0.088	0.074	0.110
동의하지 않는 편	0.212	0.218	0.237	0.304	0.272
중립적	0.186	0.327	0.351	0.322	0.308
동의하는 편	0.319	0.099	0.254	0.256	0.245
매우 동의	0.159	0.059	0.070	0.044	0.065
다문화 학생들은 진로상담이나 진로멘토링 참여에 있어 소극적이다.					
항목 \ 집단	다문화 청소년	비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행크기
전혀 동의하지 않음	0.062	0.277	0.105	0.056	0.091
동의하지 않는 편	0.301	0.228	0.158	0.254	0.244
중립적	0.195	0.317	0.535	0.455	0.413
동의하는 편	0.292	0.129	0.167	0.193	0.195
매우 동의	0.150	0.050	0.035	0.042	0.057

다음의 [그림 11]과 [그림 12]에서는 진로활동 측면에서의 진로문제 인식의 차이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자신의 장단점에 대한 기회를 파악할 기회가 드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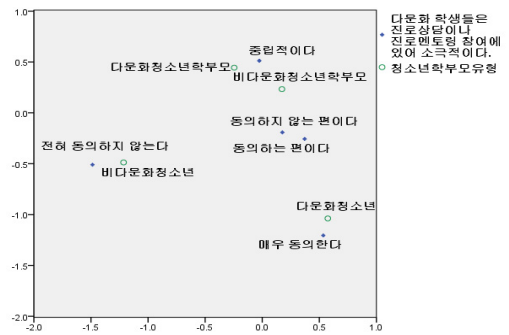


그림 12. 진로 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

5. 교육 및 제도 측면에서의 진로문제

마지막으로 집단별 교육 및 제도 측면에서의 진로문제 인식의 차이를 살펴해보았다. 첫 번째 진술문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기회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에 대한 응답은 다문화 청소년이 매우 동의(0.496)와 동의하는 편(0.301)의 비율로 가장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다문화 청소년의 학부모 응답은 동의하는 편

(0.491)과 매우 동의(0.246)의 비율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비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에 비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두 번째 진술문 “다문화인의 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동의하는 편(0.283)과 매우 동의(0.504)에 매우 높은 응답 비율을 보여 주었다.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들 역시 동의하는 편(0.368)과 매우 동의(0.237)에 높은 비율을 보여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비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에 비해 다문화인 취업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진술문 “다문화 학생들은 비다문화 학생들보다 진로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에 대해서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응답이 동의하는 편(0.381)과 매우 동의(0.212)의 비율로 다른 집단에 비해 동의의 비율이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비다문화 청소년은 동의하는 편(0.139)과 매우 동의(0.069)의 비율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학생들이 진로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은 반면, 비다문화 청소년들은 다문화 학생들이 진로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고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었다.

마지막 진술문 “다문화 학생들은 비다문화 학생들보다 진로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에 대한 응답 역시 다문화 청소년이 동의하는 편 0.345, 매우 동의가 0.230으로 높는데 반해 비다문화 청소년은 동의하는 편이 0.129, 매우 동의가 0.07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진로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 교육 및 제도 측면에서의 진로문제 인식 프로파일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기회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					
항목 \ 집단	다문화 청소년	비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행크기
전혀 동의하지 않음	0.009	0.030	0.009	0.028	0.023
동의하지 않는 편	0.080	0.079	0.044	0.044	0.053
중립적	0.115	0.436	0.211	0.298	0.278
동의하는 편	0.301	0.267	0.491	0.412	0.390
매우 동의	0.496	0.188	0.246	0.217	0.256

다문화인의 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항목 \ 집단	다문화 청소년	비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행크기
전혀 동의하지 않음	0.009	0.110	0.018	0.026	0.021
동의하지 않는 편	0.027	0.079	0.053	0.058	0.056
중립적	0.177	0.505	0.325	0.348	0.341
동의하는 편	0.283	0.257	0.368	0.372	0.345
매우 동의	0.504	0.149	0.237	0.195	0.238
다문화 학생들은 비다문화 학생들보다 진로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					
항목 \ 집단	다문화 청소년	비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행크기
전혀 동의하지 않음	0.071	0.168	0.079	0.064	0.080
동의하지 않는 편	0.142	0.257	0.149	0.209	0.198
중립적	0.195	0.366	0.465	0.378	0.364
동의하는 편	0.381	0.139	0.246	0.282	0.273
매우 동의	0.212	0.069	0.061	0.066	0.086
다문화 학생들은 비다문화 학생들보다 진로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항목 \ 집단	다문화 청소년	비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행크기
전혀 동의하지 않음	0.071	0.149	0.070	0.054	0.070
동의하지 않는 편	0.168	0.228	0.202	0.225	0.215
중립적	0.186	0.416	0.377	0.372	0.353
동의하는 편	0.345	0.129	0.307	0.274	0.270
매우 동의	0.230	0.079	0.044	0.074	0.092

마지막으로 청소년 및 학부모 집단과 교육 및 제도 영역에서의 진로문제 인식의 관계는 [그림 13~그림 16]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문화 청소년은 매우 동의하는 것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나, 비다문화 청소년들은 중립적 또는 동의하지 않는 편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그림 13]. 유사한 결과가 취업지원에 대한 필요성 인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들은 “매우 동의한다”에 가깝게, 비다문화 청소년들은 “중립적”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 집단 간에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4]. 진로정보에 대한 제한적 접근에 있어서도 다문화 청소년은 “매우 동의한다”에 비다문화 청소년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상반된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그림 15]. 다음의 [그림 16] 역시 전문적인 도움의 필요성에 대해 다문화 청소년은 “매우 동의한다”에 비다문화 청소년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 가깝

게 위치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교육 및 제도에서의 지원에 대해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이 그 필요성 정도를 다르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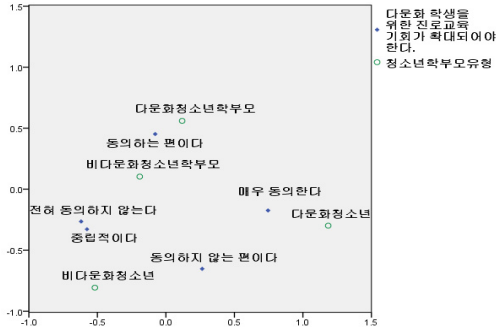


그림 13. 진로교육 기회 확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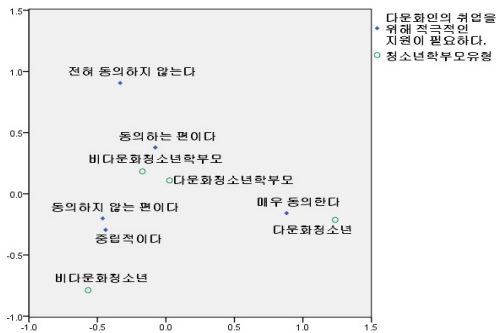


그림 14. 취업지원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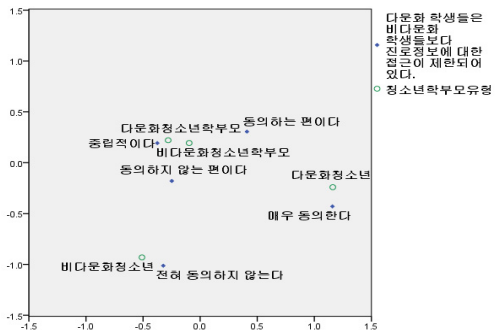


그림 15. 진로정보에 대한 접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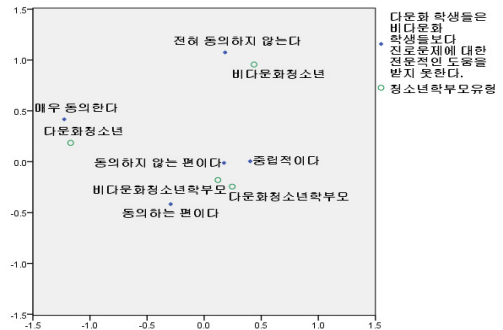


그림 16. 진로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 인식

##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가질 수 있는 진로문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진로를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결과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에 대해 개선해야 할 인식들에 대해 점검해 보고 인식 전환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과 비다문화 구성원들 간 인식의 차이, 비다문화 청소년들이 갖는 다문화 학생의 진로문제에 대한 인식, 일반 학부모들이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해 갖는 인식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이 연구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들과 비다문화 청소년들과의 인식에 있어 두드러진 차이를 발견하였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특히 사회생활과 가정환경 측면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사회생활 측면에서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외모에서의 거리감에 인식은 비다문화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과 다른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 결과는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어 구사의 어려움, 일반 학생들과 다른 외모 등에 민감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선행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9][10]. 이 연구에서도 다문화 청소년이 비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부정적인 인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문화 청소년들은 동의하지 않는 편이었으나,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집단이 동의하는 편이었다. 박현선 외(2014)의 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모두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의 계기가 필요할 것이다[13]. 전반적으로 비다문화 청소년들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인지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인식과 현황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진로문제의 원인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후속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가정환경 측면에서 역시 다문화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잘 드러나고 있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진술들에 대해 다문화 청소년은 매우 동의하는 편, 비다문화 청소년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 편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다문화 청소년들은 매우 부정적인 반면,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들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시각을 보였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관계 문제가 진로장벽의 원인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진로교육적 측면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비다문화 청소년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면, 다문화 청소년들의 진로문제를 완화시키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다문화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참여 및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뿐 아니라,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들이 가지는 부정적인 인식, 이를 테면 다문화 학생들이 가지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혼란에 대해서 역시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이 필요하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가지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혼란에 대해서는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 모두 동의하지 않는 편이었으나,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들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반면, 다문화 청소년 진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부정적으로, 비다문화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었다. 이는 외출할 때 다문화 학생들 가운데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한국 학생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경향도 있음을 보여준 연구와도 일관된 결과를 보여 준 것이다[12].

진로활동 측면에서 보면, 다문화 청소년들은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할 기회가 드물고, 진로활동 참여에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비다문화 청소년들은 동의하지 않는 편에 가까워 청소년 간에 인식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학부모 집단의 응답자들은 특정한 의견에 속해 있다 보기는 집단 내에서 다양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었다.

교육 및 제도 측면에서 역시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 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다문화 청소년은 다문화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기회의 확대, 취업 지원, 진로정보에의 접근 강화, 진로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에 대한 강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비다문화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다문화 학생 진로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 진로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 간에 인식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세계화 및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개방적인 태도는 필수적인 역량일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기회의 확대, 취업 지원, 진로정보에 접근 강화, 진로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에 대해 비다문화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심미영과 이들녀(2015)의 연구에서 제안한 것처럼 비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경험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6]. 특히,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이해 교육이 교수자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4],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활동과 교수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위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 진로교육에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학교의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추가적으로 유의표집 함으로써 결과의 일반

화에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확률표집이 가능한 표집틀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리해 보면, 다문화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을 위해서는 다문화 구성원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이 가지는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박근수와 곽연희(2013)의 연구에서 논의되었듯이 올바르게 읽는 다문화 인식이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4]. 나아가 진로에 있어서의 전문적 도움은 교육 현장에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경험이 많은 진로전문가들이 많이 투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다문화 배경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들이 자신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적성이나, 성격, 역량 등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가정환경이나 외모, 문화적 배경과 같은 비본질적인 요소들은 배제하려는 진로교육의 환경 조성이 중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통계청, 2018 교육기본통계, 2018.
- [2] 이도희,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법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7호, pp.650-658, 2019.
- [3] 이덕희, “다문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원, 심리적 안녕감과 학업태도 간의 인과관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3호, pp.760-770, 2016.
- [4] 김기홍, 이남철, 나현미, 다문화 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지원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본연구 2018-03, 2018.
- [5] 류성창,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도 실태와 과제,” 제40차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pp.95-136, 2015.
- [6] 심미영, 이둘녀, “청소년의 다문화 경험이 다문화 인식과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0호, pp.214-224, 2015.
- [7] K. K. Kim and Y. J. Hwang, “Determinant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39, No.1, pp.87-117, 2012.
- [8] A. Munroe and C. Pearson, “The multicultural attitude scale Questionnaire,” A new instrument for multicultural studies, Education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66, No.5, pp.819-834, 2006.
- [9] 박진우, 장재홍,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심리적인 요인.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4호, pp.133-154, 2014.
- [10] 김정란,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11] 임선모, 신정숙, 손재홍, “다문화 정책 시사점 도출을 위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제17권, 제10호, pp.175-183, 2012.
- [12] 양계민,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제3권, 제2호, pp.59-79, 2009.
- [13] 박현선, 이재원, 박소은,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 언어, 문화교육의 효과분석: 프로그램 과정 산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46권, 제3호, pp.56-83, 2014.
- [14] 박근수, 곽연희, “청소년의 다문화 인식 조사를 통해 본 청소년 다문화 교육 필요성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1호, pp.112-137, 2013.
- [15] 김기현, “사회통합 측면에서 진로교육의 개인·사회적 성과와 가치,” 제 46차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2018.
- [16] 박하나, 조영달, 박윤경,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진로교육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제6권, 제1호, pp.21-49, 2013.
- [17] 오성배, 서덕희,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의식, 진로준비행동과 사회적 지원실태 탐색,” 중등교육연구, 제60권, 제2호, pp.517-552, 2012.
- [18] 김민경, “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아동복지연구, 제13권, 제3호, pp.147-171, 2015.
- [19] 최윤희, 김순자,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제30권, 제3호, pp.743-662, 2011.
- [20]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다문화 가정 청소년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2010.



- [21] 남연주, 안상근, “중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진로포부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비교,” 진로교육연구, 제30권, 제4호, pp.1-25, 2017.
- [22] 노형진, *SPSS에 의한 범주형 데이터 분석*, 효산경영연구원, 2007.
- [23] 홍두승, *사회조사분석, 4th ed.* 다산출판사, 2012.

### 저자 소개

김 소 라(Sora Kim)

정회원



- 2000년 8월 : 미국 위스컨신 주립 대학(소비자학 석사)
- 2004년 12월 : 미국 오하이오 주립 대학(소비자학 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관심분야〉 : 광고규제, 정보화정책, 청소년정책